



“임파선암 불구 어머니 찾으러 고국 왔죠”

38년전 네덜란드 입양 광주 충현원 출신 박경화씨

“지난 세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꼭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38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된 박경화(여·42·Monique Beysens)씨가 지난 19일 입양 전 생활했던 광주시 남구 양립동 충현원을 찾았다. 지난 1일 한국으로 날아온 박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충현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박씨는 “이곳에서 2박 3일 간 머물며 어렴풋이 나마 지난날 추억의 조각들을 찾았다”고 말했다.

박씨에게 이번 고국 방문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3년째 임파선암으로 투병중인 그는 지금 까지 8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매일 수차례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매주 2차례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지 주치의의 만류에도 그가 고국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 15번지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박씨의 어머니는 지난 1970년 3월 박씨를 낳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그해 10월 당시 버려진 아이들이 생활했던 충현원에 보내졌고, 1973년 1월 네덜란드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리고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일했다. 하지만, 3년 전 임파선암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며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번 방문 기간 중에 꼭 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했다.

이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충현원 유해량(여·60·목사)과 2박3일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추억의 퍼즐을 맞추며 어렴풋이 기억나는 동요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병원 진료를 위해 21일 다시 서울로 떠난 박씨는 “어릴 적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충현원을 다시 보고 싶다”며 오는 30일 다시 충현원을 찾을 계획이다.

유 목사는 “경화씨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경화씨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이다”며 “경화씨와 같은 인양인들이 고국을 찾았을 때 그들이 친정집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전교생이 한자 달인 담양 용면초, 자격시험 합격



최근 한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양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한자자격시험에 합격해 화제다.

22일 용면초(교장 지대희)에 따르면 최근 전교생 41명이 한자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자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급수별로는 5급 2명, 6급 12명 등이며 상급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오는 11월과 내년 2월에도 계속 도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특색교육프로그램의 목표를 전교생 1인 2개 이상 자격증 취득으로 두고 ‘한자 달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다.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비와 강사료,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했다.

지대희 교장은 “학생들의 개인화된 의지와 학부모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전교생이 상급 자격증 취득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소설가 한승원, 전남대서 특강

소설가 한승원(73)씨는 23일 오후 4시 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에서 ‘소설 속 남도 사람들의 삶과 감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한씨는 이날 강연에서 청중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원조적 생명력과 색채의 미학으로 묘사한 남도의 삶과 감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무등의림상 대상 허정 에덴병원장

학술상 황태주 교수·공로상 김종두 원장



허정 병원장

황태주 교수

김종두 원장

광주시의사회(회장 이정남)는 22일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전현권)를 개최하고 ‘제21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각 분야 수상자는 ▲대상 허정 에덴병원장 ▲학술상 황태주 전남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공로상 김종두 김종두원장 등이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 소아암 연구 및 치료의 선구자로 한국 소아혈액종양학 발전 및 조혈모세포이식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허 원장은 지난 2000년 전국에서 자연분만

을 1위를 하는 등 자연분만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 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또 무의존 무료진료 순회사업, 미혼모 및 영아원 무료진료 등 의료봉사에 앞장서 왔다.

김 원장은 매년 도서 및 농촌지역을 방문, 무료 진료 및 이미용, 도장, 장수사진 촬영 등 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태국 치앙마이, 요르단 암만 등 해외의료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현대 삼호重 오병욱 사장 조선해양의 날 은탑훈장

임직원 3명도 표창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오병욱 사장)과 회사 직원들이 최근 정부로부터 잇따라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대표이사 오병욱 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8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오 사장은 197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래 조선사업부와 플랜트, 해양사업본부장을 거친 뒤 지난해 말까지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12월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로 자리를옮긴 이후 산업설비와 해양사업 등 신수종 사업에 적극 나서며 수주와 생산 등 전 분야에 걸쳐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조선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선분야에서 혁신과 혁신으로 업

무에 임하며 공정혁신과 품질 제고에 공로가 큰 의장 1부 최영진 부부장과 기술관리부 김일호 기원이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자재지원부 이용만 직장은 우수조선해양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환경부가 주최한 ‘제3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노력을 인정받아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전남대 전·현교수 발전기금 기탁



박오장 명예교수

손석준 교수

대학 발전과 제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전남대 전·현직 교수들의 발전기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년퇴임한 박오장 간호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간호학에 “제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내놓았다. 간호학과는 학기별로 가장 협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에 중시한 학생들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전남대 보건진료소장을 맡고 있는 손석준 교수도 최근 제자들이 의학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1000만원을 기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죽립공원의 야생화

향·맛 독특… 전 만들어 먹기도



<107> 양하

양하는 생강과 속하는 여래해살이풀, 한자어 양하(襄荷)에서 유래해 ‘풀’을 들을 때, 짐을 가볍게 하다’라는 뜻으로 야리작용이 짐을 들듯이 몸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듯하다.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진 양하는 먹을 거리로 더 유명하다. 1600년대 조리서(調理書)인 ‘주방문’(酒方文)에 양하로 전을 만들어 먹었다고 기록돼 있으며, 전라도에서는 양하전을 차례상에 올리기도 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지원보전과장>



학생 230명에 1억8000만원 장학금

빛고을장학재단

(재)빛고을장학재단(이사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에 광주시청 종회의실에서 2011년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011년 (재)빛고을장학재단이 선정한 장학생은 모두 230명으로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140명, 대학생 74명이다.

이들 학생들은 광주시 교육감 및 각 대학 총장(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됐으며, 지금 대상별로는 전학년 장학생 13명,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152명, 생계곤란장학생 45명, 예체능 특기장학생 2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모두 1억8000여 만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T&G, 채용설명회 ‘문신 그려주기’ 이벤트



KT&G는 22일 오후 조선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설명회에 앞서, 부대행사로 조선대 서석홀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문신 그려주기’ 이벤트를 가졌다.

〈박지영 시민기자〉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이대원(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광주 지사장)·최금주씨 장남 경진(우리은행)군 이성진(사업)·박선희씨 장녀 보라(교사) 양=24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 메리어트 웨딩홀 2층 컨벤션홀.

▲이은석(삼성화재 은석보험 대리점 대표)·최광희씨 장남 경현(부동신협)군 김강순·한순옥씨 장녀 루시 양=24일(토) 낮 12시 천주교 능성동 성당.

▲김성숙(동도종합건설) 부사장·김상심씨 장남 문성군 장성록·김용순씨 차녀 혜연 양=24일(토) 낮 12시 광주 생활동 성당 2층 본당.

▲서동철·오영례씨 차남 성렬(세아베스틸)군 조상필(전남발전연구원)·나은희씨 장녀 하나(한국기술)

종친회

▲남주최씨 광주 종친총회(회장 최남식)·남희화합어울한미당 대축제=24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 산간유원지 010-7632-6050.

▲한국 범최씨 대종연합회(회장 최남용)=24일(토)~25일(일) 최씨 선진지 1번2일 시찰 062-263-3220, 010-3604-6865.

▲광주인성고총동문회(회장 정용활)·체육대회=25일(일) 오전 9시 모교운동장 010-4601-3222.

▲광주상고 35회(회장 정업)·한마디 체육대회=25일(일) 낮 12시 대촌중학교(매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남평가는 길.

향우회

▲제광보성읍향우회(회장 주영권)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광주시 남광주시장내 광주아나고 062-223-2929.

인백(3/4분기 모임=27일(화) 오후 6시 30분 화랑궁회관(예술의 거리) 입구) 011-602-9727.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현영) 이사회의=29일(목) 오전 11시 30분 무등고시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 062-1366.

●이종열

●발인: 9월 23일

●연락처: 02-227-4386

●발인: 9월 23일

●연락처: 02-227-4385

●발인: 9월 23일

●연락처: 02-227-4385

●발인: 9월 23일

●연락처: 02-227-4385